

News & Issue

뉴스와 쟁점

코스타리카의 행복과 연대

임수진

코스타리카 정부가 베네수엘라 제헌의회를 인정할 수 없다며 베네수엘라 주재 자국 대사를 소환한데 이어 반정부 운동을 주도하다 긴급 체포된 야권지도자들의 석방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미국, 유럽연합(EU), 칠레를 비롯한 국제사회가 제헌의회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에도 불구하고 제재에 소극적인 것과는 달랐다. 코스타리카 정부는 내정간섭이라는 비난에도 마두로 정권을 독재정권이라고 규탄했고, 급기야 미주기구(OAS) 회의에서 양국 외교장관이 충돌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2015년 미국과 쿠바의 국교정상화 이후 쿠바인에 대한 미국의 이민특혜 폐지가 예상되자 중미를 경유해 미국으로 가려는 쿠바난민이 코스타리카로 유입됐을 때의 일이다. 니카라과가 국경을 봉쇄하자 외교장관이 코스타리카에 발이 묶인 만 명이 넘는 난민을 한 명 한 명 만났다. 수개월이 소요됐지만 장관은 난민의 절박함을 직접 보고 들었다. 그 후 코스타리카는 미국과 중미 국가 간의 협상을 이끌어 난민이 미국으로 안전하게 입국할 수 있도록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1980년대 미국이 니카라과 내전에 개입하기 위해 코스타리카에 군대를 주둔하려고 했을 때다. 오스카르 아리아스(Óscar Arias) 당시 대통령은 미국의 원조 중단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미국 의회 연설에서 “코스타리카의 안보는 무기가 아니라 민주주의와 교육이 지킨다”고 거부 의사를 밝혔을 만큼 민주주의와 평화를 지향하는 코스타리카 정부의 의지는 분명



타라수(Tarrazú) 커피농장. 자연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 커피나무를 한 줄로 가지런히 심지 않아 원래 자라던 나무와 어우러져 있다.(출처: 필자)

하다. 그리고 두 달 후 아리아스 대통령은 노벨평화상을 수상했다.

작은 나라 코스타리카가 국제사회에서 평화와 민주주의를 상징할 수 있게 한 원동력은 아리아스 전 대통령의 연설에서 나타나듯 민주주의와 교육에 있다. 코스타리카의 교육 목표는 정의와 평등, 관용, 다양성의 존중, 법치, 인간의 존엄성, 타인에 대한 연대와 공감, 표현의 자유다. 미래의 지도자 양성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가치를 이해하고 이행하는 시민을 국가의 교육 목표로 하여 공동체 안에서 도덕적이고 참여하는 성숙한 시민으로서 마땅히 갖추어야 할 권리와 의무를 교육하는 것이다. 1964년부터 시작한 민주시민교육은 일회성 프로그램이 아니라 유치원 때부터 정규 수업 시간에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 역사 시간에 코스타리카 문화유산을 배운다고 하면, 문화유산에 대한 역사적, 예술적 배경과 가치를 전달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학생 개인의 의견을 자유롭게 말하고 경청하게 한다. 이 때 학생들은 합리적 근거에 의해 말해야 하고, 다른 학생들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수업은 토의식 외에도 가정, 기업, 학교, 정부기관, 지역사회단체 등과 함께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처럼 모든 수업이 공동체 안에서 나의 의사를 표현하고 듣는 자세를 익히면서 참여하는 방식의

로 진행되면 학생들은 민주주의를 자연스럽게 체득한다. 즉 민주주의는 절차와 제도를 넘어 내 삶의 가치가 되고, 책임 있는 시민은 국가의 근원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형성된 행복하고 강한 공동체적 연대는 코스타리카 곳곳에서 실현되고 있다. 함께하면 이룰 수 있다는 연대의식을 바탕으로 하는 협동조합은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에 힘입어 현재 전국적으로 90만 개가 넘게 조직되어 있다. 국민의 21%가 조합원이고, 16%는 직접 고용되어 일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최고의 커피 생산을 자랑하는 코페 타라수(Coope Tarrazú R.L.)는 지역 소농의 권익 보장과 지역 발전,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1960년에 설립된 코스타리카에서 가장 규모가 큰 협동조합이다. 약 오 천 명의 지역 소농민이 조합원으로 등록해 있고, 주유소, 마트, 은행 등 10여 개 커피 관련 기업이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동의 이익을 위해 함께 하고 있다. 화학비료를 쓰지 않고, 커피나무를 심기 위해 산림을 훼손하지 않으며, 노동 시간을 준수하는 등 다소 느리고 불편하더라도 지역의 풀뿌리공동체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환경과 동물을 보호하고, 인권, 공정 무역을 실천하면서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연대의 노력은 2015년 동물원의 동물들을 자연으로 돌려보내는 것으로 확대되었고, 같은 해 재생에너지 전기 공급률이 98%를 넘어섰을 만큼 화석연료 사용을 폐지하고 주로 수력발전으로 전력을 생산하고 있다. 이처럼 개발 과정에서 잘 보존된 자연은 코스타리카를 생태관광의 낙원으로 만들어 자연과의 평화를 정착시켰다.

이러한 연대의식은 어린이라고 예외는 아니다. 1980년대 후반 개발로 숲이 사라지는 것을 안타까워한 어린이들이 스스로 연극 공연도 하고, 그림을 그려서 판매하는 등 수익 사업과 모금을 하여 ‘어린이 숲’을 조성하자 정부가 개발 계획을 중단하였다고 한다. 또한 1981년 설립된 산호세의 놀이동산은 그 수익금을 어린이병원 기금으로 기부함으로써 돈이 없어 치료를 못 받는 어린이가 없도록 하고 있다. 모든 축제에는 어린이를 위한 이벤트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고, 남녀 화장실 옆에 어린이 전용 가족화장실이 따로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뿐만 아니라 세 살 이상 어린이에게는 대선, 총선은 물론 지방선거 투표권을 부여하는 제도가 있다. 모의투표



타라수 커피협동조합의 주유소. 신재생에너지 분야까지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출처: 필자)

이긴 하지만 참여와 공동체의 가치를 배울 수 있어 참여율이 높다. 그야말로 민주주의가 삶 속에서 물처럼 흐르는 시민의 행복한 일상이다.

코스타리카는 ‘시민의 참여와 공정한 기회’라는 연대정신을 강조한다. 국가가 제도로 연대를 이끌어 가는 것이 아니라 시민주도의 자치와 공고한 민주주의가 선순환 할 수 있도록 협력하는 것이 공공정책의 방향이라고 믿는 것이다. 물론 경제발전 속도가 느리고, 경제적으로 좋은 삶이라고 말할 수 없을 수도 있다. 하지만 성숙한 시민은 행복하다. 그곳은 사람 중심의 인류보편적인 가치가 실현되고 있는 민주주의와 평화의 땅 코스타리카이다.

임수진 — 대구가톨릭대학교 중남미학 교수